 농촌진흥청	보 도 자 료		작성과	축산환경과
	2018년 7월 9일(조간) 부터 보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*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월 8일 11시부터 보도 가능		담당자	과장 곽정훈 농업연구사 우샘이
			연락처	063-238-7409
			제공일	2018. 7. 6.(총 2장)

보다나온 농촌진흥청

“무더위에 열사병 걸리지 않도록 살피주세요”
- 땀샘 적고 털 많아 체온 조절 어려워... 차 안에 방치 말아야 -


- 농촌진흥청(청장 라승용)은 여름철 반려견 건강을 위한 관리 방법과 주의할 점을 소개했다.
 - 개는 피부에 땀샘이 거의 없다. 혈떡임 등 호흡으로 열을 발산하는데, 몸을 뒤덮은 털이 발산을 방해해 체온 조절이 어렵다.
- 반려견이 더위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것은 ‘열사병’이다.
 - 열사병은 신체의 열 발산 체계가 과도한 외부 열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한다. 일반적으로는 반려견 체온이 41℃(도) 이상(평소 38℃~39℃ 정도) 오르는 때를 말한다.
 - 주로 △환기가 잘 되지 않아 덥고 습한 환경 △문을 닫은 채 차에 방치된 경우 △밖에 쉴 수 있는 그늘이 없는 경우 △마실 물이 부족한 때 발생하기 쉽다.
 - 특히 반려견이 △비만 △피그나 불도그처럼 납작한 코 △두껍고 긴 털 △호흡기 질환이나 심장 질환을 앓는 경우에 발병이 더 쉽다.
 - 증상은 침을 흘리며 혈떡이거나 심박 수가 빨라지고, 호흡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. 구토나 설사, 근육 경련, 발작도 나타난다.

- 열사병 증상을 보이면 즉시 시원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다. 털과 피부에 시원한 물을 뿌리고 선풍기 등으로 체온을 떨어뜨려야 한다.



<휴대용 선풍기 앞에서 더위를 식히는 반려견>

- 이때 얼음이나 얼음물을 사용하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.
 - 열사병은 반려견의 건강에 치명적이기 때문에 응급처치로 회복했다고 해도 이후에 반드시 검진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.
 - 아울러, 여름에는 자동차 안에서 열기를 견디지 못해 개가 죽는 사고도 종종 발생하므로 차에 반려견만 두는 일이 없도록 한다.
-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환경과 우샘이 농업연구사는 “반려견의 보호자는 더위에 약한 반려견의 신체 특성을 고려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날 수 있게 관리해줘야 한다.”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 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우샘이 농업연구사(☎ 063-238-7409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